

맑고 깨끗한 물을 지키는 크라운 맥주

■ 편집부

“술은 좋은 우정을 위하여 있고 차(茶)는 조용한 유덕자를 위해 있다”는 말이있다. 또한“술을 곁들여 환담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유익하다”고 철인 플라톤은 말했다. 술의 주성분 중의 하나인 물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불이없이 존재할수없듯이 술이없는 인간생활이 얼마나 매마르고 무미건조 하겠는가?

자연에는 여러형태로 물이 존재하고 있지만 과연 자연수 그대로 사용할수 있는 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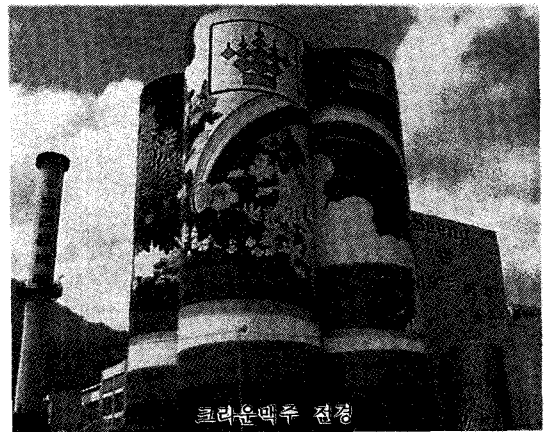
우리는 맑은 물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도시하수나 공장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버린다면 식수원의 오염은 물론 농업용수까지도 이용할수가 없게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래서 하수처리 시설이나 공장폐수 처리시설은 급수시설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질좋은 물의 대명사로 일컬는 마산에 위치한 조선맥주 주식회사 마산공장을 이달의 환경관리 현장으로 찾았다.

1933년 국내 최초로 맥주회사를 설립하여 1978

년 한독맥주(주)를 인수, 크라운맥주 마산공장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1983년 국제주류 품평회에서 맥주부문 금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더우기 세계적 유명 브랜드인 칼스버그맥주를 마산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재 국내 프리미엄 맥주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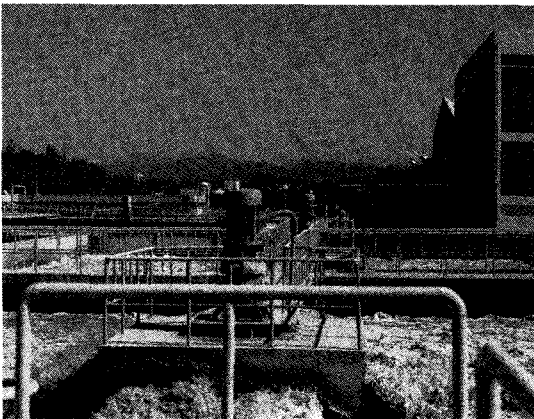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는 크게 로칼맥주와 프리미엄 맥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 로칼맥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표를 갖고 국내에서 시판되는 것으로 조선맥주의 크라운과 동양

맥주의 오비가 대표적이다. 또한 외국 맥주회사와 기술제휴를 맺은 국내회사가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외국상표의 맥주를 프리미엄 맥주라한다.

또한 맥주의 맛은 무거운 맛을 특징으로 하는 유럽형과 가벼운 맛을 내세우는 미국형으로 대별되는데 이 같은 맛은 맥주의 원료인 맥아, 호프, 호모, 물의 형태와 양조 방법에 따라 판가를 난다.

맥주는 B.C 4200년 메소포타미아 지방(디그리스, 유프라테스강유역)의 바빌로니아에서 맥주를 제조했다는 기록이 있는 이후 에집트로 전수되어 유럽에서 발달되었다. 맥주는 그 양조용수에 따라서 타입이 결정되며 물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방울의 물이라도 소중히 아끼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종업원이 인지하



폐수처리장 전경

여 술선수범하고 있으므로 환경관리에 있어서도 우수업체로 주목을 끌고 있다.

87년 환경청 환경모범업체로 지정된 크라운 맥주 마산공장의 소진욱 전무이사는 “환경보전

이란 국민 개개인이 인식과 양식 그리고 행동에 있으므로 우리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환경보전은 어느 한정된 사람이 아닌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마산공장 폐수처리장은 대지 5,000m²에 기존시설에 5천만원이 투자되었고 79년도에는 1차 증설하여 2억천만원, 81년도 2차 증설시 10억원이 투자 되었다.

처리능력을 보면 7,000톤/일로 연간 5억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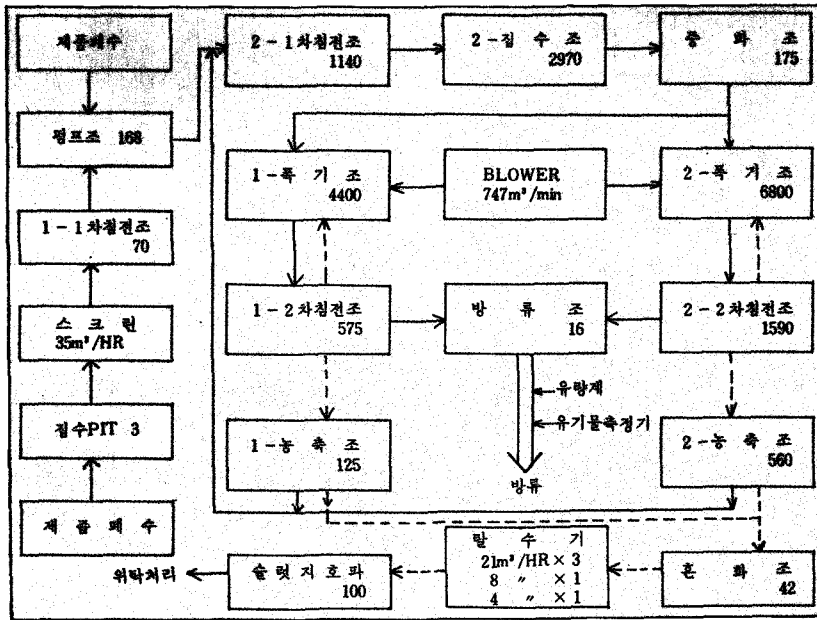
특이한 것은 폐수처리장이 2개소로 서로 연결 보완하여 처리를 하는데 생산 활동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스크리닝을 한후 1차침전조에서 침전물을 분리하고 침수조에서 수질을 균질화 한후, PH조절이 끝난 폐수가 폭기조에 들어간다.

폭기가 완료되면 2차 침전조로 이송되어져 잉여 슬러지는 탈수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고 상등액은 방류하게 된다. (방류량 130만톤/년)

크라운맥주 마산공장에서는 조선맥주 기술연구소(서울 영등포 소재)와의 공동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강력히 폐수처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폐수처리 균주분리 및 배양 실험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한 폐자원의 재이용면에서 맥주오니의 유기질 비료화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 현재 회사 농장에서 작물포장 실험중이며, 수질을 담당하는 환경관리인 황수남씨는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온 숨은 공로자이다. 그는 맑은 물만보면 폐수처리에 관한 생각이 머리속에 지배한다고 한다. 또한 1985년 우수지방 시설 가동 업체로 환경청장의 표창을 받은바 있는데 그때에 환경관리인의 공로가 컸던것. 그는

단위 : m³

폐수처리장 공정도 (Flow Sheet)



현재 본회 마산지부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폐수처리장을 총괄하고 있는데 경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며 동 대학원에서 총학생회장직을 맡고 있어 늘 바쁜 나날들이다.

특히 숨은 재능이 있어 제5회 환경보전협회 주최 환경보전 사진공모전에서 입상한적도 있으며 회사내의 씨클린 사진회를 비롯하여 맥향회, 낚시회, 산악회, 기우회, 축구회, 분재회, 야구회, 테니스회가 있는데 사진회를 조직하기도 한 리더로 환경에 관련된 배경이라면 서슴없이 카메라에 담는다.

현재 환경전담요원은 수질1급기사 2명을 비롯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 하나뿐인 우리 금수강산을 맑고 깨끗한 환경유산으로 자손만대에 물려주기 위해 24시간 근무에 임한다고, 또한 수질 1종 업체로써 1986년도 폐수처리 비용은 전력비 1억5천만원, 약품비 1억5천만원, 폐기물처리비 7천만원, 인건비 1억원, 수선비와 기타 3천만원등 총 5억원 (톤

당처리비 400원)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최근 통계에 의하면 GNP의 방지시설 투자비율이 미국 1%, 일본 2%, 그리고 우리나라가 0.3%에 불과한데 비해 마산공장의 경우 경영진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본금의 11%를 투자하였음은 물론 금년 사업계획에 있어서도 폐수처리 설비에 3억원의 예산을 승인할 정도로 환경업무 진행에 적극적이고 환경 오염 방지적인 면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렇듯 기업주와 환경실무자들의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이 오늘의 조선맥주를 이루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과 술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철저한 환경관리 없이는 맛있는 술을 만들어 낼수도 없는것.

이제 우리는 금수강산이라 일컬어 물려받은 이땅에 맑은 물줄기가 유유히 흐를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되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